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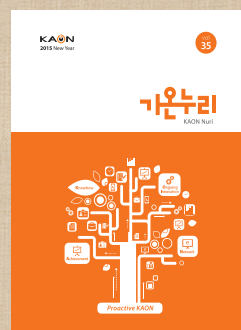
가운누리

KAON Nuri





COVER STORY



Knowhow
Achievement
Ongoing Innovation
Network

최상품의 포도는 모래흙(沙土)에서 자란다.

최상품의 포도는 사토(沙土)에서 자라는 것이다.
사토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더욱 더 깊이 모래 속을
파고들어 가야만 하는 시련을 겪는다.
때문에 와인은 더욱 더 영양과 맛이 깊어진다.

로리 베스 존스

» 존 오도노휴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에서
'레이스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거기에 난 구멍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성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행복은 좌절이나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Opening KAON NURI

- 04 CEO LETTER
- 08 Celebration
- 10 KAON News Review

Kaon Zoom In

- 14 Team Introduction _P&I그룹 (P&I Group)
- 16 Expert Column _성남 FM 방송 PD
- 18 ABTA, BBWF, IBC
- 22 2014 하반기 KAON Hero

- 24 Business Column
- 26 가온미디어 공채 1기



이청훈 PM
성남 FM 오경수 PD
America팀 임도훈 대리, 오경철 PM, 서정욱 PM
이창원 팀장, 원충희 팀장, 오원근 파트장, 여승진 파트장, 김성민 책임연구원,
유재곤 전임연구원, 김병환 대리
부설연구소 전대석 연구소장
인사파트 천지현 사원

Kaon Culture

- 28 Peer Recommendation Relay
- 30 Kaon CSR
- 34 KFC_가온 축구 동호회
- 36 Volunteering activity _April Shower(Sweething)
- 38 We Get married

자금팀 이길창 팀장
인사파트 이성훈 파트장
Planning 팀 최재원 차장
EMEA팀 국회남 주임
김동현 대리, 곽보미주임, 문병은 책임연구원, 조지현 선임연구원

Kaon Endorphin

- 42 A Happy Day with You
- 44 겨울 여행지 이야기
- 46 Your birth is a miracle

전략PJ팀 이영민 책임연구원
총무파트 최상아 사원
정상훈 주임연구원, 신연식 주임, 최규환 선임연구원, 이종희 선임연구원



겨울호 vol.35

발행처 가온미디어 발행일 2015년 2월 4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4 가온미디어 빌딩
전화번호 031-724-8500(대표전화) 홈페이지 www.kaonmedia.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KAON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EO LETTER

2015 New Year Message



대표이사 임화섭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맙시다!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으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가온미디어/가온소프트회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Dear fellow staff members,

2015 을미년 청양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해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성장을 보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e first day of 2015, the year of the blue sheep, has dawned upon us.

As we welcome the New Year, filled with hope, I wish the best and happiness to all the households of our staff members at home and abroa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you for demonstrating growth that has been more substantial than any other year.

2014년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많은 IT 기업들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가온미디어는 전 임직원들의 하나된 노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한 해였다고 대표이사 본인은 자부합니다.

In 2014, KAON MEDIA accomplished a distinguished achievement indeed, through the united effort of all staff members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internal/external economic conditions and the stagnation of many IT companies. As CEO, I particularly take pride in our accomplishment of the last year that we continuously enhanced competitiveness to carry out a winning game.

미래로, 세계로
새로운 역사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Dear fellow staff members,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We must continuously challenge ourselves and seek innovation.

If we settle for a small success in the present, we may fall into a bottomless pit in the blink of an eye.

현재의 조그만 성공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유지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가 될 때까지 성공하느냐 쇠퇴하느냐의 두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속적인 혁신과 도전만이 우리와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며, 개인과 회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us, the word "maintain" is meaningless. We face only two options: either succeed until we become the best, or perish like the rest. Only continuous innovation and effort will lead the future for us and our families and guarantee the success of each individual and the company.

우리는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야 합니다.

We must achieve this year's goal.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정신을 갖고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얼마만큼 미리 준비하고 고민했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갈립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all need to have ownership and take the initiative more through preemptive decision mak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task depends on how much we have prepared and pondered. We need, more than ever, the wisdom that makes a successful result through preemptive action.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인 Wi-Fi사업과 가온소프트는 그 목표달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The Wi-Fi project and KAONsoft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company's future growth, and even more in need of meeting the goal.

우리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와 이에 대한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프로액티브하게 실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신규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We have already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and paid enormous prices for them. A proactive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As CEO, I will put forth all my effort for the success of the new project.

임직원 여러분!

Dear fellow staff members!

올해 글로벌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난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간에 차이는 더욱 극명해질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맙시다! 도전정신과 주인의식으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가온미디어/가온소프트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래로, 세계로, 새로운 역사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The global management environment this year is forecast to have a gloomy outlook, with more changes and hardships than ever. The gap between a prepared company and an unprepared company will be even further widened. Let us be modest and remember our original resolution! With pioneering and ownership, let us make the KAON MEDIA and Kaonsoft of the best competitiveness together! Let us advance forward to the future, to the world, and to a new history. Thank you.

2015년 새해 On the first day of 2015,
대표이사 임화섭 CEO Hwa-Seop Lim

KAON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 합니다.



신규입사자

Celebration

- 6월 _3명** 시스템팀 전문Part 황병우 수석 / Euro CIS팀 임경빈 차장 / 스마트미디어팀 현상기 책임
- 7월 _6명** P&I그룹 서정욱 PM / 연구기획팀 박효원 전임 / 구매팀 박대성 과장 / 전략PJT팀 전상훈 수석 / 디자인팀 김승화 주임 / 시스템팀 Basic Part 최성호 책임
- 8월 _5명** 재무관리팀 김세종 주임 / 벤자민팀 문병은 책임 / CAS팀 CA Part 김동훈 전임 / CAS팀 CA Part 이슬기 연구원 / 전략PJT팀 백지훈 전임
- 9월 _2명** IPTV팀 우대훈 전임 / 디자인전문 Part 김희연 주임
- 10월 _6명** 디자인팀 고영두 주임 / 연구기획팀 정윤근 전임 / 아시아/오세아니아팀 김하정 주임 / 물류 Part 박승리 주임 / EMEA팀 East Europe Part 국희남 주임 / 품질운영팀 신월실 과장
- 11월 _4명** 구매팀 최웅 주임 / 비서 Part 홍보람 대리 / America팀 South LATAM Part 이소라 주임 / 사업1팀 서동범 차장
- 12월 _6명** 마케팅기획팀 정현균 대리 / IPTV팀 추형진 책임 / CAS팀 CA Part 남일룡 수석 / 미디어드라이버팀 송완섭 수석 / 아시아/오세아니아팀 연창모 주임 / 연구기획팀 유규상 연구원
- 1월 _9명** 영업지원팀 이지선 과장 / 네트워크팀 정문영 책임 / 네트워크팀 강우현 주임 / CAS팀 Loader Part 이용해 책임 / 비서 Part 최수린 사원 / EMEA팀 MEA Part 정우철 대리 / 아시아/오세아니아팀 차경준 대리 / America팀 USA Part 이나라 과장 / 사업2팀 권대근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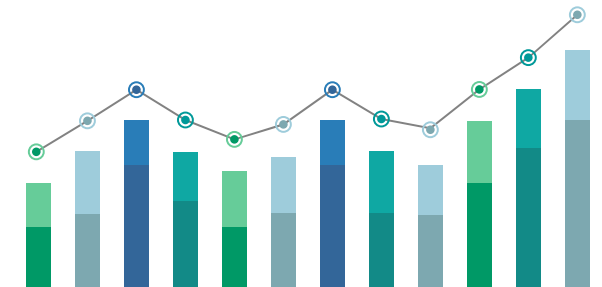
가온미디어 공채 1기

- 제조기술팀 김규용 사원 / 제조기술팀 송지용 사원 / 디자인전문 Part 김동겸 연구원 / 디자인전문 Part 이은혜 연구원 / 벤자민팀 김용원 연구원 / 벤자민팀 성민지 연구원 / 벤자민팀 한희범 연구원 / 시스템팀 Basic Part 조건 연구원 / 구매팀 박준석 사원 / 구매기획팀 조은영 사원



KAON News Review

2014년 하반기 가온뉴스



7월

July



1 가온미디어, 셋톱박스 충전 표시방법 관련 특허 취득

KAONMEDIA obtains patent for a set-top box charging indication method

가온미디어는 무선 충전장치 내장형 셋톱박스의 충전상태 게이지 표시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특허는 무선 충전장치의 충전제어 칩셋과 외부에 근접한 충전대상 단말기가 상호 통신하며 충전 상태를 게이지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온미디어 관계자는 "스마트박스과 홈게이트웨이 제품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August

1 가온소프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획득

KAONSOFT obtains GS Certification from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가온소프트가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미르(Meerue) 3.0' 버전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GS 인증은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제도로 ISO/IEC 9126·25041·25051 등 국제 표준이 근거한 품질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등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주어진다.

2 "가족과 해외여행 다녀와" 우수사원에 보상 화끈한 기업

"Travel abroad with your family"...generous reward given to an outstanding employee from the big-hearted company

최근 '가온히어로상'을 신설, 우수사원 선발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근무했던 실적을 토대로 우수사원 4명을 선발한 후 5일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이 계약을 맺은 여행사에 일정액을 지불하면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은 여행 일정과 상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9월

September



1 가온미디어, 저소득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KAONMEDIA supports the cataract surgery costs for low-income seniors

가온미디어는 최근 정성노인의 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함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술비를 부담할 계획이어서 사회공헌 활동 의의를 더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두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가온소프트, 'MS 애저' 기반으로 모바일 플랫폼 제공

KAONSOFT provides the mobile platform for "MS Azure"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온소프트가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미르(MEERUE)'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온소프트의 미르는 자동화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기업 백엔드 시스템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전송해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한다.

10월

October



1 가온미디어, 정규직 공채1기 선발

KAONMEDIA begins first official recruitment for full-time positions

가온미디어는 2014년 하반기 정규직 공채1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그 동안 수시채용으로 인력을 뽑아왔던 가온미디어에서 처음 도입한 공개채용의 부문은 부설연구소(SW개발, HW개발, 제품·시각디자인), 경영지원(웹시스템, 특허소송·분쟁), 제조품질(생산관리, HWQA), 구매자재(원가관리) 등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가온미디어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2 제 12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 개막

The 12th President's Cup Soccer Tournament is held

'축구를 통해 하나된 가온인' 10월 8일 가을이 성큼 다가온 날. 제 12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의 개막전이 열렸다. 5개의 팀이 조 추첨을 거쳐 2개조로 나눈 후, 조별 리그를 걸쳐 각 조 1위팀이 우승을 놓고 경기를 치렀다. 가온인의 단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즐거운 화합의 장 제 12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의 우승은 경영지원실&미디어사업본부 팀에게 돌아갔다.

11월

November



1 가온미디어,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고속성장 예상

KAONMEDIA establishes itself as a global company, with rapid growth expected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업체로 2012년 턴어라운드 이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온미디어는 2012년 말부터 국내 KT, SKBB에 IP Hybrid 셋톱박스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중남미 최대 통신 사업자 텔멕스와 텔레포니카에도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남미 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셋톱박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고속 성장하고 있다. 가온미디어의 중남미 향 매출액은 2013년 450억원 수준에서 2014E 800억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도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 외로운 아기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Set 만들기

Gift sets of love made for lonely babies

2014년 하반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고자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에게서 버림 받은 외로운 아기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만들고 있다.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물품(인형/팔랑이 DIY키트) 구입 및 재능 기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가온인들의 기부금 일부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DIY로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연말을 준비 중이다. 오가닉 팔랑이와 곰인형은 12월 초록우산을 통해 외로운 아기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12월

December



1 TTA 시험인증 최우수상 수상! [시청각장애 보조방송 수신기]

The Company Received the Best Award for TTA Test Certification [Broadcast Receiver for the Visually and Hearing Impaired]

가온미디어는 시청각장애 보조방송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셋톱박스 'BKO-S200'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TTA 서티파이드 인증 기준에서 정한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수신 기능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 55개 항목 테스트 과정을 마쳤다. BKO-S200은 안드로이드 젤리빈 운영체제(OS)를 적용한 최초의 스마트 셋톱박스다. 기존 제품이 제공하지 않았던 구글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구글 앱스토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앱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말 송년행사, 봉사활동으로 대체!

The Year-end Party is Replaced with Voluntary Activities

"처음엔 봉사활동에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이젠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한다." 방송 및 통신 솔루션기업 가온미디어는 회사 송년회를 3년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대신하고 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금요일, 샌드위치 데이임에도 불구하고 240여 임직원들이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한사랑마을'을 비롯해 '정성노인의집' 등을 찾아 공연과 함께 식사 돕기, 청소와 빨래, 방송시설 수리 등을 했다. 연말연시 사랑을 베풀며, 2014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Team Introduction

P&I 그룹

이청훈 / PM
P&I Group



P&I 그룹은 PM 조직과 마케팅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M 조직은 지역 PM과 전문 PM으로 나뉘지요. 지역 PM은 김철민 CTO를 위시로 고재영PM, 김윤상PM, 오경철PM, 서정욱PM, 이청훈PM, 최용준PM 이고, 전문 PM으로 김기남PM, 정무성PM, 신승현PM이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팀은 12월에 신규인력을 보강하여 한상희팀장과 정현균대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As tasks by P&I Group are related to the overall company, the group desires to be provided with wholehearted support. Based on organic cooperation among sales/R&D/production/management departments, we are making our own total solution as a masterpiece.

조직구성보다 무엇을 하는 그룹인가가 가온인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P&I 그룹의 이름에서 기본 가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Proactive and Innovative!!! 이 정신을 바탕으로 PM (Project Manager 아닙니다. 더 큰 의미의 Product Manager 랍니다.)들은 바이어와 진행되는 과제를 포함해서 회사의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팀은 대부분 전시회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와 Roadshow는 많은 업무 중 하나이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을 시장 조사, 트렌드 분석, 신제품 제안, 전략적 전시회 준비, 사업자 로드쇼 방향 설정, 바이어 미팅 전략 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P&I 그룹의 일은 회사 전반에 걸쳐있고 따라서, 각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업/연구소/제조/관리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가온만의 Total Solution을 작품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P&I 그룹의 수장이신 사장님 말씀을 빌어서 설명 드리면 쉽게 공감이가실 겁니다. 사장님의 분신!!! 7000억 나아가서 조단위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을 보완하는 많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의 실행 방안 하나가 P&I 그룹이며, '나의 회사였다면'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1차 목표입니다. 어느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바이어와의 제일 앞에서부터,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을 거쳐 필드에 일어나는 품질이슈에 따라서 향후 모델까지를 다 아우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로 보이시나요? 가온인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려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만들 미래가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2015년입니다.

-
1. 김철민 CTO
 2. P&I그룹 팀회의 장면
-

P&I 그룹의 일은 회사 전반에 걸쳐있고 따라서, 각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업/연구소/제조/관리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가온만의 Total Solution을 작품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pert Column



오경수PD / 성남 FM방송

1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직 성남에 살면서도 성남FM에 대해 모르는 분이 꽤 많은데요, 피디님 소개와 더불어 성남FM에 대해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남FM방송은 경기도 유일의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으로서 1W의 소출력으로 안테나 반경 5Km이내에서 FM주파수로 수신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7개입니다. 방송국은 서울 마포와 관악, 충남 공주, 대구 성서, 경북 영주, 광주 북구, 경기 성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남FM방송은 2005년 4월 첫 시험전파를 송출하고, 2005년 9월에 'FM분당방송'으로 개국하여 2010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에서 90.7MHz에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국이 있는 서현역을 중심

으로 반경5Km내에서 성남FM방송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국 홈페이지(www.fmnara.com)의 실시간 듣기와 스마트 폰 어플(tune in radio)로 어느 곳에서든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성남FM방송에 입사했고, 현재는 '차 한잔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는 성남FM방송 정용석 대표님이 성남지역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2 그동안 방송 제작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지역 정보 프로그램인 '굿모닝 성남'을 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종종 방송 사고에 가까운 위기를 맞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생방송 프로그램이라 사전에 인터뷰 하시는 분과 대본을 주고받으며 준비를 했는데 방송 도중 할 말을 잊으시는 경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진행을 하였던 정용석 대표께서 재치 있게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정용석 대표님은 KBS에서 30년 넘게 방송을 하신 분입니다. 8~90년대에 도쿄, 런던 특파원으로 활동하셨기에 4~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얼굴을 기억하십니다.

3 성남FM에 대한 자랑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남FM방송은 성남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 음악을 바탕으로 오전6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루 20시간 동안 매일 방송을 합니다. 자원 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어, 성남시민이 성남소식을 성남시민에게 들려주는 지역 밀착형 라디오 방송입니다. 현재 60여명의 진행자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FM방송을 야구에 비유하면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남의 소식과 정보를 방송하여, 용

인과 수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성남지역의 자량이자 문화 자산입니다. 앞으로 성남FM방송은 성남의 지역색을 더욱 강화하여, 다른 방송과 차별화되고 성남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4 청양의 해를 맞아 올해 개인적인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청양의 뜻을 살펴보면, 푸른색은 새롭고 신선하며 양은 온순하고 생각이 깊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처럼 올해는 매일 새롭고 성실하게 하루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입니다. 만족스러운 하루가 모이게 되면 만족스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정신이 깨어 있고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5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성남FM방송은 매년 봄과 가을 개편을 앞두고 방송 자원 활동가를 선발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성남FM방송에서 교육을 받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방송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남FM방송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남FM방송은 방송을 사랑하고 성남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방송 통신 디지털 컨버전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가온미디어 가족들께 성남FM방송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원용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는 가온미디어 가족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BTA, BBWF, IBC



IBC 서정욱 PM



서정욱 /PM
P&I Group

»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암스테르담 RAI에서 열린 IBC 2014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IBC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매년 개최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있고 규모가 큰 방송전시회 중 하나로서 우리 가온의 진보된 기술력을 고객과 거래선에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We participated in the IBC 2014 Exhibition held in RAI Amsterdam during September 12-16, 2014. The IBC exhibition is held every year in Amsterdam, Netherlands, as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influential and largest electronic and media entertainment exhibitions. It is also the most optimal exhibition for KAONMEDIA to show its advanced technology to clients and business connections.

» 이번 전시회에서는 Low cost STB부터 4K UHD STB 및 DOCSIS Gateway 그리고 신규사업 아이템으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 중인 Residential GW, AP Router 등의 Wi-Fi 제품군까지 창사 이래 가장 폭넓은 제품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전시 부스는 베이지톤의 바닥과 오렌지톤의 회사로고가 조화를 이루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고객이나 파트너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객 및 파트너사와의 미팅에서 있어서도 회의안건을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상담으로 연결되었으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n this exhibition, our company introduced the broadest range of the product line since the founding of our company, ranging from the low-cost STB, 4K UHD STB and DOCSIS Gateway, to new business items, Wi-Fi products such as a residential GW and AP Router, which have been focuses of our company's development capacity. The exhibition booth had a warm atmosphere with a beige floor harmonized with the company's orange logo, and clients and partner companies also found it favorable. Furthermore, we prepared meticulously for the propositions brought up in meetings with clients and partner companies, making sure that each meeting led to a professional business consultation and ultimately a company accomplishment.

“

뭐든 철저히 준비한 만큼 성과를 냅니다
향후 전시회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큰 성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



» 미팅 시에는 비즈니스적인 논의를 주로 하는 영업부서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연구소 PM 및 팀장이 한조를 이루어 고객과 파트너사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시기간이 주말을 포함하여, 5일간으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였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제품 데모, 비즈니스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모든 참가자들과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본 전시회에 선발대 겸 후발대에 배정되어 전시품 사전준비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체 과정을 겪은 소감은 뭐든 철저히 준비한 만큼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시회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큰 성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The project manager and team manager from the sales department responsible for business discussions, and the R&D center responsible for technological support, formed a group and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clients and partner companies during the meetings. We salute all the participants who did not lose their concentration and successfully finished the product demonstration and business consultation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which even included the weekend, and required much energy for five days. My personal thought after the exhibition, as a staff member who went through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 preparation to the last product packing, is that your accomplishment i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your preparation. I wish we can continue to earn our clients' trust and achieve a big accomplishment in future exhibitions through meticulous preparation.

BBWF 오경철 PM



오경철 /PM
P&I Group

» BBWF(Broadband World Forum)는 세계 최대의 광대역(broadband) 통신 행사로서 네트워크 혁신, 서비스 최적화, 그리고 소비자 현금화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21-23일 동안 Netherlands의 Amsterdam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크게 전시 및 학회로 구성되는데, 우리 KAON MEDIA를 포함한 무려 140여개 업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 장비 및 미디어장비에 대한 솔루션을 전시하고 시연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학회에서는 광대역 이동통신, 최근 WiFi 기술인 11ac을 적용한 Connected Home, 망 가상화 등의 주제로 300여 발표자가 발표하고 청중들과 토론하였다.

As the world's largest broadband communications event, BBWF (Broadband World Forum) was hel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in October 21-23, under the slogan of network innovation, service optimization and customer monetization. As this event is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conferences, about 140 companies, including KAONMEDIA, participated in the event to exhibit and present solutions for broadband network and media equipment; at conferences, about 300 presenters made presentations and discussed with audiences on various themes such as broadband communications, Connected Home, which applies the latest WiFi technology 11ac,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etc.

» 특히 우리 KAON MEDIA는 이번에 처음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규모의 부스를 확보하여 “Digital Life Simply Connected” 라는 슬로건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UHD 셋톱박스, 유무선 공유기(AP Router), 최근 케이블 기술을 적용한 DOCSIS* 게이트웨이, 그리고 VDSL2* 기술이 적용된 레지덴셜 게이트웨이 등을 전시하여 관람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Canal Digital, Telecom Italia, Telenor Cable, Bouygues Telecom, 그리고 KPN 등 유명 operator의 방문이 줄을 이루었으며, 솔루션 제공 업체인 Broadcom, Qualcomm, Axiros, 그리고 Ikanos 등으로부터도 미팅을 제안 받는 등 KAON MEDIA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pecially, KAONMEDIA secured a relatively large-sized booth, though it was the first time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and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visitors by displaying various equipment under the slogan of “Digital Life Simply Connected,” including UHD set top box with the cutting-edge technology, hard wired and wireless router (AP Router), DOCSIS* gateway with applying the latest cable technology and residential gateway with VDSL2* technology. Indeed, many well-known operators such as Canal Digital, Telecom Italia, Telenor Cable, Bouygues Telecom and KPN visited the company’s booth, and as many solution providers such as Broadcom, Qualcomm, Axiros and Ikanos proposed to have a meeting, we genuinely felt KAONMEDIA’s high status in the market.

»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KAON MEDIA는 세계 최고 수준인 셋톱박스 외에도, 기술과 고객 중심으로 WiFi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세계 중심의 WiFi 업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Based on this exhibition, the company needs to develop and promote various WiFi products with focusing on technology and customers, other than the world’s best set top box, to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WiFi companies in the world.

ABTA America팀 North LATAM Part 임도훈 대리



임도훈 /대리
America Team

» ABTA EXPO 2014는 브라질 유로TV 통신 협회에서 주최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Endless Possibility’ 라는 모토아래 개최 되었다. ABTA는 매년 평균 150개 이상의 통신 및 유로 TV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새로운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선보이는 자리이다. 브라질 시장은 남미에서 최대 규모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년 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줬다. 2013년 또한 2% 때의 비교적 낮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유로 TV 시장은 전년대비 11%때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ABTA EXPO 2014 was held in Sao Paulo, Brazil in August 5-7, by Brazil Euro TV Communications Association, under the theme of “Endless Possibility.” ABTA is a forum where more than averaged 150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communications and Euro TV are engaged every year and present not only their new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future projects. The Brazilian market has the largest marketability in South America and has grown drastically, showing the annual growth rate of 30% on average from 2006 to 2012. In 2013, despite a relatively low GDP growth rate of 2%, the European TV market showed its high growth rate of 11% compared to the last year.

» 가온 미디어는 STB 시장에서 세계최고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브라질 시장과 더 나아가 전 남미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의 역할로서 약 2년전 브라질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법인 설립 초기에는 시장개척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ABTA 전시회에도 2012년과 2013년 ABTA에 참가 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였다.

To realize a big dream of becoming the world’s best company in the STB market, KAONMEDIA established a foreign branch in Brazil about two years ago, which has played a role as a forward base for not only the Brazilian market but also the whole South American market; however, at the early stage of its establishment, we faced various problems in pioneering markets. Although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ABTA exhibition in 2012 and 2013, its performances and results were not that great.

» 2014년에는 우리 가온은 초기 시장 진입의 많은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고 가온의 전체적인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반증하듯 ABTA 2014에서 참가하여 가온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Booth와 다양한 제품들로 여러 사업자들과 교류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치르며, 단 시간 내에 성장한 가온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

In 2014, despite many difficulties for entering the market and fierce competition, KAONMEDIA achieved tangible performances and contributed to the company’s overall growth. As the company successfully presented various products at its unique booth and exchanged with various business operators at ABTA 2014, KAONMEDIA demonstrated its high status as a company significantly grown in a short period of time.

» 가온은 글로벌 리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2015년 또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여러 전문기관 및 언론에서 이야기 하듯 2015 세계경제는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미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집적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 되지만 우리 가온은 우리만의 성공 DNA로 위기 속에서도 성공을 이루어 내고, 2015 ABTA에서는 더욱 높아진 우리 가온의 위상을 재 증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KAONMEDIA aims to become a global leader; for this aim, the company needs to be successful based on continuous growth. In 2015, we leap forward to achieve bigger goals. As many experts and media have already pointed out, the global economy for 2015 is expected to have various variants, and especially, South America is likely to be directly affected by many variants, which will make competition even harder. However, we have no doubt that KAONMEDIA will achieve goals with its own DNA for success and prove its higher status once again at ABTA 2015.

“
가온은
글로벌 리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2014 하반기 KAON Hero

2014년 12월 30일 오후, 2014년을 뜨겁게 장식한 주인공! 하반기 가온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를 빛내주신 자랑스러운 7명의 가온인!
혁신적인 생각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PROACTIVE를 몸소 실천하는 우리의 가온히어로를 소개합니다.
There arrived a hero who brought glory to the year of 2014!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eople of KAON Award Ceremony was held in the afternoon of December 30, 2014. The proud, 7 people of KAON who graced the second half of 2014!
We would like to introduce our heroes of KAON, who advance forward to the world with their innovative mind and proactive initiatives.



이창원 팀장 | 제조품질그룹 EMS팀

2014년을 되돌아 보면 정신 없이 바쁜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제 자신도 한뼘 더 성장한 한 듯 하여 따뜻한 연말과 희망찬 올미년 새해를 시작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사상 최대 매출과 진정한 Global STB leading 회사와 경쟁 할 수 있도록 신발끈 다시 묶고 가온미디어 입사 할 때 초심으로 되돌아가 또 한번의 성공 신화를 만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충희 팀장 | 구매자재그룹 구매팀

2014년 하반기 가온인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받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 팀 그리고 저희 그룹 나아가서는 모든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였기에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가온인이 아닌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온인이 되어, 초우량 기업에 같이 앞장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가온인상을 받도록 힘써 주신 강승원 그룹장님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승진 파트장 | 영업본부 EMEA팀 MEA Part

정말 바빴던 2014년은 영국 보다폰 자회사인 케냐 사파리콤 수주로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 새해 화두는 본격적인 "아프리카시장개척"입니다. 기획의 땅에서 가온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일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원근 파트장 | 영업본부 America팀 South LATAM Part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Proactive하게 생각하고 거래선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민 책임연구원 | 부설연구소 미디어드라이버팀

턱 없는 자격에 선정되어, 수감황망할 뿐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전임연구원 | 부설연구소 벤자민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온인상을 받게 되어 감개무량 합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저보다도 팀장님을 비롯하여 팀원분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서 저도 덩달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병환 대리 | 경영지원실 인사 Part

예상치 못한 가온인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이 가장 앞섭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 들여 회사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는 가온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여러모로 도와준 인사관리팀 직원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Business Column



전대석 / 연구소장
부설연구소

2010 년 이후 디지털 셋톱박스의 보급과 진화의 움직임이 급속화 되고 있습니다. 3D 및 OTT 또한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mart 기기들과의 연동 등 디지털 셋톱박스의 기술은 진화의 물결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Since 2010, the distribution and evolution of digital set-top boxes have been accelerated. The technology of digital set-top boxes such as 3D, OTT, and synchronization with smart devices based on the wired/wireless Internet, is swirling in the rapid stream of evolution.

이에 당사 부설연구소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도 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선정하여 연구소 개개인이 요소기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발은 현재 변화하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요소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요소기술을 리딩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내정하여 그 담당자가 현재 요소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Therefore our company's R&D center has selected an essential technology that can lead and understand the market flow, and established long-term plans based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e CEO and other staff members so that each individual in the R&D center can be an essential technology expert. The first step of such plans will be selecting an essential tech-

nology which can occupy the center of the rapidly changing market, assigning responsible staff who can read that essential technology, and paving the way for the staff members who have yet to become experts to become the essential technology experts.

현재 당사에서 선정한 요소기술은 약 20여개가 있으며, 전문가로는 40여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로 선발된 요소기술 담당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을 습득하고 전파 할 수 있도록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습득된 요소기술을 당사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당사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며, 이와 더불어 개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Currently, there are about 20 essential technologies and 40 experts selected by our company.

The essential technology experts selected during the first stage acquired the expertise of each corresponding technology and are directing seminars to exhibit that technology. It is our goal to enhance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our products and allow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by applying those acquired technologies to our products.

회사의 부가가치는 각 연구원의 부가가치라는 일념 하에 한걸음 한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소기술 전문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We advance step by step, with our commitment to the belief that the value-added of our company is the value-added of each research staff member. The constant development of essential technology experts to achieve the company's objectives and enhancement of the impetus for future growth are not easy tasks, but those are the tasks that must be advanced and executed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where there is endless competition and only the fittest can survive.

가온미디어 공채 1기

The 1st KAON Media Open Recruitment

공채 신입사원들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쳐라!



1



2



3



4



천지현 /사원
경영지원실 인사파트

서류 접수 경쟁률 '117대 1'의 놀라운 수치와 함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되었다.

With the astonishing competition ratio of '117:1' for the application phase, our great challenge has begun.

대학교 방문/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오프라인 및 다양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결과, 지역별/연령별/분야별 우수한 취업 준비생들이 '2014년 하반기 가온미디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입사지원 했다.

As a result of various online and offline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university visits and participation of the recruitment fair, many outstanding employee candidates from different regions, age groups, and fields have applied to 'the Second Half of 2014 KAON Media New Employee Open Recruitment.'

까다로운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최종 선발된 10명의 신입사원들은 2015년 1월 5일, 많은 임직원들의 환영과 함께 당당히 '가온인'이 되었다.

사회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출근 첫날, 한껏 긴장된 표정의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가온미디어에서 처음 도입하는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인사파트와 많은 임직원분들 또한 느꼈던 설렘은 같은 감정이었을 것이다.

3일간의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1박2일간 멘토와 함께하는 워크샵을 통해 그들은 가온미디어라는 새로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멘티 하나되기 교육'및 체육활동 등을 통해 멘토링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입사원과 멘토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해 회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아닌 향후 가온미디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인지 재조명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새하얀 도화지를 받았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리는 사람만 안다. 자신이 성의있게 그리는지 건성으로 그리는지, 이렇게 그리면 멋진 그림이 그려질지 초라한 그림이 그려질지를...

회사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이라는 큰 투자를 했으며, 그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선택 받았다. 이제는 신입사원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독창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려나가며 가온미디어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일만 남았다.
가온미디어 공채 1기 신입사원 모두 파이팅!!

1. 2014년도 하반기 공개채용 면접중
2. 코옴 공장 견학중
3. 공채신입사원 워크샵
4. 대표이사님과의 티타임

칭찬 릴레이

Peer Recommendation Relay

이길창 /팀장
자금팀



좌)이길창팀장
우)김승범팀장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칭찬!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칭찬! 인정과 칭찬은 기대한 만큼 성장하고 발전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부모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 뒤에는 꾸중과 비난을 일삼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가온인!

이번 칭찬 릴레이 주인공은 재무관리팀의 김승범 팀장입니다!

Compliments make even a whale dance! People say that recognition and compliment grow and develop as much as we expect. There are embracing and appreciating parents behind a successful man, and reprimanding and criticizing parents behind a failing man. We are the people of KAON, who contribute to ongoing development of our company as we encourage and appreciate each other, and shares happiness and kindness among the coworkers! The man of this Compliment Relay is the Team Manager Seungbum Kim, of Financial Management Team!

한 해를 마감하며 김승범 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항상 두리뭉실한 얼굴과 몸매에 밝은 모습으로 기분 전환이 됩니다.



많이 먹는 식성으로 언제나 함께 식사 할 수 있어 생활의 활력소도 됩니다. 더불어 자금과 재무라는 비슷한 듯 다른 업무 성격으로 가끔은 티격태격 할 수 밖에 없는 사이지만 그러한 티격태격 사이에 재무팀장으로 지식을 전달 받을 수 있어서 업무 성과에도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난 7년동안 감사의 뜻을 전달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김승범 부장에게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져 봅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by the Practice of Sharing



이성훈 /파트장
경영지원실 인사파트

안녕하세요. 가온인 여러분!

2012년 연말 송년봉사활동을 기점으로 '나눔의 실천' 문화가 점점 더 가온인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회사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담당자로서 무척이나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온누리에서는 그 동안 지나온 '나눔'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현재 진행중인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t this time in the KAON Nuri we would like to look back on our history of sharing and introduce a number of current philanthropic projects.

나눔의 공감대 형성하기 Building rapport of sharing

가온미디어는 창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특정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모든 가온인의 공감대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 나눔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KAON has been implementing a culture of sharing through various philanthropic projects. Such a culture is not created by a specific group, but rather formed within the consensus of all KAON people. Let's look back on what kind of activities have built a rapport of sharing in 2014.



1 이홍렬대사와 함께하는 기부교육 Donation Education with Ambassador Hongryul Lee



지난 3월, 모든 가온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재단의 이홍렬 홍보대사님을 모시고 'Fun Donation 기부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기부란 즐겁고 유쾌한 것임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기부 Love Donations for neighbors in need



자사는 2013년부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중증장애우 요양시설인 한사랑마을과 '1사1촌 결연식'을 맺고, 2년째 회사 송년회를 이곳에서 재능기부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본부별로 연 1회씩 한사랑마을을 방문하여 나눔의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시설의 장애우 분들과 자사의 임직원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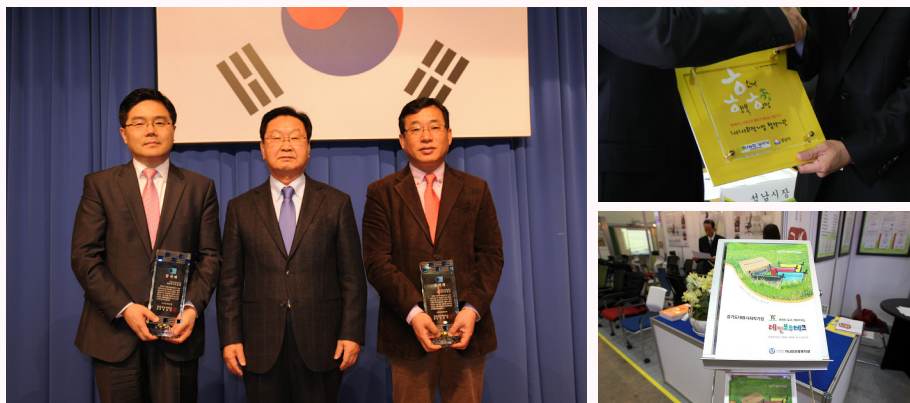
3 관내 학생들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Talent Donations for local students



지난 2월,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는 중합지역아동센터와 '1사 1센터 결연식'을 맺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매월 도서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전사적인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도서를 모아 총 350여부의 책을 기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사의 동호회에서도 '행수Day_행복한 수요일'을 정하여 어려운 학생들과 매월 한번 교류회를 통하여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동호회(요리, 배드민턴, 농구, 봉사)가 Rotation으로 교류회를 진행중이며, 향후에는 모든 동호회가 '행수Day'에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4 관내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하는 성장 Growth with local social companies



자사는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들을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온인의 숨은 노력의 결실로 자사는 성남상공회의소 주관의 제8회 우수 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진행되었지요? 중요한 사실은 가온인의 숨은 노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한 활동들을 몇 가지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5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감대 Shared Values with vulnerable social groups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가온인이 직접 만든 곰인형과 딸랑이, 그리고 실종예방수첩을 관내 탁아소 및 어린이집/유치원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들여 만든 곰인형과 딸랑이를 받아든 아기들의 모습과 실종예방수첩을 한 손에 들고 실종예방 교육을 받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천사의 얼굴을 엿 볼 수 있었고, 이런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가온미디어의 직원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랑의 손길을 해외로도 뻗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초록우산과 함께 현재 베트남의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식수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6월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온누리 다음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온인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온미디어는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러한 사업을 후원해 주시는 가온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We at KAON will striv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rough the practice of sharing. Once again we thank every person in KAON who covertly sponsored our philanthropic projects, and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future endeavors.

KFC

가온 축구 동호회

Kaonmedia
Football Club



최재원 /차장
Planning 팀



Kaonmedia Football Club (KFC)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대 KFC 총무를 지낸 이후 현재는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조품질그룹 Planning Team 최재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Let us introduce the KAONMEDIA Football Club (KFC).

“
직장, 가정, 축구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가온미디어의 KFC가 진정한 국가대표 입니다.
”

빠어난 축구 실력은 아니지만, 축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KFC 회장 대행 최재원입니다. 아...하나 빠졌네요... 일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

가온 축구 동호회 (이하 KFC) 는 2011년 초 창단되어, 약 4년간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체 유니폼을 맞추며 약 30여명의 인원으로 의욕적으로 창단된 KFC 는 업무도 열심히 축구도 열심히 가족에게도 열심히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KAONMEDIA Football Club (KFC) was founded in early 2011 and has been active for about four years. The KFC consists of 30 passionate members who share the club's uniforms and try their utmost in their work, soccer, and even for their family.

Job, home, soccer. The KFC of KAONMEDIA, trying its utmost in all tasks, is the true national player.

KFC 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돌마 초등학교에서 약 1시간 가량 축구 연습, 미니 게임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그룹의 멤버와 더불어 슷돌이 김광일 씨, 아마선수 정주영 사원, 원발의 달인 박상현 사원, 날쌔돌이 신동윤 대리 등등! 젊은 피가 많이 수혈이 되어 분위기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제는 외부 시합에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해가 빨리 지고 날씨가 추워져서 활동이 뜸해졌지만 실내 풋살장, 야간 경기장 등을 월 1회 대여하여 활동을 이어가고자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축구를 좋아하는 가온미디어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정, 축구!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가온 미디어의 KFC 가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Volunteering activity

_April Shower(Sweething)



국희남 /주임
EMEA 팀

안녕하십니까 영업 1그룹 EMEA팀 국희남 주임입니다. 해마다 지역사회와 이웃들, 그리고 먼 해외의 소외된 아이들에게까지 따뜻함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우리 가온인 여러분! 그 수고에 감사 드리며 저도 입사와 함께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고도 행복합니다.

Hello, I am Yvonne Guk, the assistant manager of the EMEA Team of the Sales 1 Group. Dear people of KAON, who share their warmth and kindness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neighbors, and even with isolated children abroad. I'm grateful for all your efforts, and also happy and proud that I now take part in your endeavors as a part of this company.



1

36 2014.10.10 + 2014.10.22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작은 봉사크루 "April Shower"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월에 내리는 따뜻하고도 시원한 소나기처럼 April Shower는 맘씨 좋은 아티스트들과 시원시원한 젊은이들이 함께 꾸린 봉사모임입니다.

무명 화가 및 작가분들의 작품을 로열티 없이 제공 받아 아트소품과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로원 김장 봉사
와 장애인 목욕봉사를 메인으로 하고 시기에 따라 태안 피해지역 봉사(2007), 헤이티 수해지역 생필품 봉사(2010), 필리핀 지진 피해민 생필품 봉사(2013)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가 저조하여 자금이 부족할 땐, 회원들의 코 물은 용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활동하기도 합니다. ^^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돈이나 시간, 힘을 들여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저이지만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더 큰 행복을 가져가는 쪽 또한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회원분들에게도 고맙지만 제가 봉사할 수 있게 기꺼이, 그리고 감사히 도움을 받아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The one thing I have learned from community service is that the happiest person in every moment is me, although I am the one who spends money, time, or energy to help out. I'm grateful to those members who work with me, and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ose who allow me to provide service and gladly, gratefully accept my service.



2

1. 재활원 봉사활동 모습
2. 태안 피해지역 봉사활동 모습



KAON MEDIA 37

We Got married !

유난히 축복과 사랑이 넘친 2014년 하반기.

새신랑, 새신부가 된 우리 가온인 중 4명의 4인 4색 Interview!

The latter part of 2014 was particularly blissful and full of love.

At last we have become one, with our love as innocent as a pure snowflake, in this season of first snow blossoms. With all the blessings and love in this world, and wishing them the best dreams and mindsets, interviews with four newlyweds from the people of KAON now begin!



QA팀 김동현 대리

1.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서른 셋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10월 12일에 결혼한 QA팀 김동현 입니다. 우리 형수님의 소개로 형수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애 기간에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신혼 생활이 즐겁습니다.

2.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 사람과 결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나 생각 때문에 딱 결혼 해야겠다! 라고 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이끄는 데로 연애를 했고 멋진 프러포즈를 했고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준 내 아내는 결혼 승낙을 했겠죠!

3.신혼여행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신혼여행은 광으로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친구들과 광에 다녀왔었는데 그곳 사랑의 절벽에서 다음에 한번 다시 미래의 남편과 꼭 와야겠다고 자물쇠를 걸어 놓았는데... 이제 그 자물쇠의 글귀는 현실이 돼서 미래의 남편인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놓고 사랑의 종도 쳤어요~

4.첫날밤을 보낸 소감은?

아주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죠~! 유부남들은 다들 아시죠?

5.품절남이 된 소감 좀 들려주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내편이 되어 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는 영원한 내편이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편을 만드세요~! 영원한 내편과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Forever~!



품질운영팀 박보미 주임

1.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품질운영팀 박보미 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한 지 딱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가온에 오고 나서 결혼이라는 큰 선물도 얻게 되어 먼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2. 결혼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어떠셨나요?

결혼식 6개월 전부터 준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예비 신랑이 많이 양보해주었고, 사실상 작은 물건을 하나 고르더라도 둘의 취향이 비슷해서 오히려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둘만의 또 다른 이벤트라고 생각하니 더 신났어요.

3.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 사람과 결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참 생각이 유연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일, 그리고 사랑, 둘 다 꾸준하고 한결같이 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고, 많은 면에서 존경 할 수 있는 예비신랑이라 결혼이 갑작스럽게 여겨지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4.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또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내 편, 또 다른 가족 이 생긴다는 건 살면서 가장 달콤한, 행복한 선물 같아요. 모두 좋은 짝 만나셔서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5.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

오빠! 나의 멋진 신랑, 우리 가온누리 겨울호에 나왔다. 계탔다! 잘살아요 우리! 파이팅!



🔔 벤자민팀 문병은 책임연구원

1.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운에 8월에 입사하여 벤자민팀에 소속된 문병은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어 회사에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2.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 사람과 결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딱 이거다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고, 여친과 사귀어 오면서 서서히 이 사람과는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사람도 나를 평생 이해해주고 사랑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3. 품절남 소감 좀 들려주세요.

아마도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안도감.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이 시작될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이

제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다는 책임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4.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또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혼을 생각할 때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주저 말고 실행해라 입니다. 흔히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라고 하는데 결혼 전부터 이것 저것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

너를 만나서 1년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나와 결혼을 결심해 줘서 고마워.

결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겪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자. 평생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 네트워크팀 조지현 선임연구원

1.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늦감이 유부남이 된 조지현입니다. 항상 그리던 것인데, 아직은 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보아야 정말 유부남이 되는 것이 진정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 사람과 결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자친구가 예쁘고 착한 것이 큰 이유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보다 더 큰 이유는 착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이야기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말이지요 ^^ 다른 서로가 만나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점이 저는 결심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3.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하와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드라이브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마우이라는 섬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생각에 하와이를 골랐습니다.

4. 품절남 소감 좀 들려주세요.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여야겠네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조금 더 나은 가정을 가꾸고 싶습니다.

5.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

아주 아주 오랜 시간 후에도 손잡고 단풍 구경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서로에게 노력하며 살아가자. 내가 더 노력할게 평생 ~ 사랑해♥





A Happy Day With YOU



이영민 / 책임연구원
전략 PJT 팀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 속에 파묻혀 매일 매일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는 우리 가온의 자랑스러운 슈퍼맨을 소개합니다!
People say that children are the biggest blessing from the sky.
We introduce you our proud KAON superman,
who lives every happy day with the blessing.



1 평소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퇴근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일찍 퇴근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일찍 올 수가' 듯한 놀란 눈으로 "아빠" 외치며 저에게 달려와 매달립니다. 맨 먼저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까지... 그 다음에 침대에서 1대3으로 레슬링을 하면서 놀 때가 많습니다.

2 아이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놀이가 있다면?

퀴즈놀이를 많이 합니다. 1주일 동안 아이들이 읽은 책을 가지고 제가 퀴즈를 냅니다. 줄거리/날말 뜻/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퀴즈를 내고 맞추면 칭찬과 함께,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게 합니다. 주로 아이들은 그 돈으로 축구공 / 장난감 / 야구 글러브 등을 샀던 것 같습니다.

3 평일날 출근 하는 아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주로 주말에 무엇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시나요?

집 뒤에 북한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함께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인근 고등학교에 축구교실이 있어 축구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아이는 정식으로 축구훈련을 받고, 저와 둘째, 셋째는 주변에서 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나름 공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아이들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그 때 보냅니다.

4 이럴 때 우리 아이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세명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 놀면서 해맑게 웃는 것을 보면, 나에게 이런 행복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5 이럴 때 우리 아이들 누굴 닮았을까 의문이다!

말을 엄청 안들을 때.

6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양서를 많이 읽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며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7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인 요즘, 다자녀라서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감사하게 나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었으면 합니다.

8 아이 1명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사교육비까지 총 3억 가까이가 든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남다른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남다른 희망도 있습니다. 풍족하게 support를 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9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제일 예쁜 아이를 꼽자면?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예쁜 아이보다는 제일 애뜻한 마음이 가는 아이는 둘째입니다. 첫째 만큼 부모로부터 support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막내보다 귀여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애뜻합니다.

10 집에서 인기투표를 하자면? 1위부터 나열해주세요.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고, 각 분야에서 각각 1순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미모 1위는 집사람, 예체능 1위는 큰아들, 학교생활 1위는 둘째, 귀여움 1위는 막내인 것 같습니다.

11 가족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2년에 교회에서 같은 모임에서 만나 1년교재 하고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첫째(이정환/10살/아들)을 갖고 그만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외로울 것 같아 둘째(이주한/8살/아들)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딸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아내도 딸을 원해 셋째를 가졌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아 막내아들(이승한/5살/아들)을 낳아 잘 키우고 있습니다.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겨울 여행지 이야기

Warm Winterlands & Real Winterlands



최상아 /사원
경영지원실 총무파트

안녕하세요, 가온인의 출장 항공권 담당자! 총무파트 최상아입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겨울날만에 설레고 싶기도 합니다. 고민 중이신 가온인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Hello, I'm the business trip and air travel guru of KAON people, Sanga Choi.
In the winter I sometimes want to take off to warm places, and at times long for the winter sentiments of a white winter day covered with snow. Here are some options for those agonizing KAON people.

1.필리핀 팔라우 2.크로아티아 3.일본 홋카이도 4.캐나다 로키산맥



따뜻한 겨울나라 & 진짜 겨울나라

Warm Winterlands & Real Winterlands

01 따뜻한 나라

... 환상적인 바다의 정원 “필리핀 팔라우”

필리핀 팔라우는 때문지 않은 자연과 모험을 좋아하시는 자유인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팔라우의 바닷물은 1년 내내 섭씨 20도로 유지되어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샤크 아일랜드에서는 전문 다이버들이 극찬하는 꿈의 바다인 팔라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 폭의 그림 같은 나라 “크로아티아”

최근 ‘꽃보다 누나’에 나오며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울창한 천연림과 폭포들, 에메랄드 빛 호수가 장관인 나라입니다. 대표적 관광지는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입니다.

02 진짜 겨울 나라

... 눈 덮인 설경 “일본 홋카이도”

유명한 영화인 ‘러브레터’의 배경으로 멋진 설경을 보여준 홋카이도. 일본인들조차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손꼽는 홋카이도는 이 겨울, 더욱 투명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연인,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 녹지 않는 설산의 배경 “캐나다 로키산맥”

야생 동,식물의 안식처와 고산지대 동화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곳으로 유명한 캐나다 로키산맥! 그 중에서도 밴프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에는 야생화가 고원을 가득 메우고 겨울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아름다운 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Your Birth is a miracle



정상훈

신연식

최규환

이중희

2014년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초보 아빠들의 육아스토리! 회사 일과 육아로 바쁜 초보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The story of new fathers, and their angels who came down from heaven one day in 2014! Let's hear from the new fathers who are busy with company work and baby-cuddling.

가온소프트 Application Part 정상훈 주임연구원, 사업2팀 신연식 주임, 전략PJT팀 최규환 선임연구원, 스마트미디어팀 이중희 선임연구원.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빠들의 이야기!

The four fathers who say that their children are loveliest when they are asleep! While changing diapers may be the hardest work in the world for them, today the new fathers try to be supermen both at work and home.

Raising a child, they say, is a new adventure every day. Our imperfect supermen also take their wobbly steps, one after another. KAON gives them a big hand and endless support for these new fathers taking baby steps.

1.신연식님가족 2.정상훈님가족 3.최규환님가족 4.이중희님가족



1 평일 날 출근 하는 아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주로 주말에 무엇을 하며 아이와 함께 하시나요?

정상훈 주말에는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웅알이를 시작해서 같이 얘기하거나 안아주면서 대부분의 주말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신연식 평일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집안에서 유모차를 끌면서 놀아주고,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아기용품들을 사고 있습니다.

최규환 평일에는 아무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주말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둘째 때문에, 우선 순위로 밀리는 첫째와, 등산, 공원 산책, 블록놀이를 합니다.

이중희 평일에는 타지역에 있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대구로 직접 내려 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구요. 아직 태어난 지 100일이 안되어서 따로 놀아 주는 것 보다 많이 안아주는 것이 전부 입니다.

2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정상훈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신연식 Make love?

최규환 첫 때는 SJ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둘 때는... 그때는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중희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 제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정상훈 부부라도 각자의 시간을 조금씩 가질 수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는 각자의 시간이 없어진 점이 제일 달라진 점이라 생각합니다.

신연식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최규환 극장을 못 갑니다, 팔이 아픕니다. 연인을 잃고 천사를 얻었습니다.

이중희 모든 생활 중심이 내가 아닌 아이 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4 아이가 누굴 닮길 원하셨나요? 실제로 누굴 닮았나요?

정상훈 엄마, 아빠 골고루 닮길 원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아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연식 여자라 엄마 닮았으면 했는데 반반 닮았네요.

최규환 내심 아빠를 닮기 원했습니다, 실제로는 반반 정도 적절히 유전자 타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희 외탄하길 바랬지만 심한 친탁 입니다.

5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상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합니다.

신연식 잠을 오래 자면 좋겠어요(중간에 끊어 자다 보니 힘들어요 ㅠㅠ)

최규환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겪기를 바랍니다.

이중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의미에 부합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이승재 : 계승할 승, 재상 재, 즉 대통령 ㅎㅎㅎ)

아이들이 잠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네 명의 아빠들! 기저귀 교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초보 아빠들은 오늘도 이렇게 회사와 가정에서 슈퍼맨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이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슈퍼맨들도 서툰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갑니다! 그 발걸음에 가온이 힘찬 박수와 아낌 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TEL +82 31 724 8524 / FAX +82 31 724 8998 / EMAIL sophie.cheon@kaonmedia.com
KAONMEDIA bldg, 513-4 Yatap-Dong, Seongnam-City, 463-839, Republic of Korea